

2020년 7월 17일

KIWOOM DAILY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서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넷플릭스 상승 전환 성공에 힘입어 낙폭 축소 민주당, 공화당 경쟁적으로 경기 부양책 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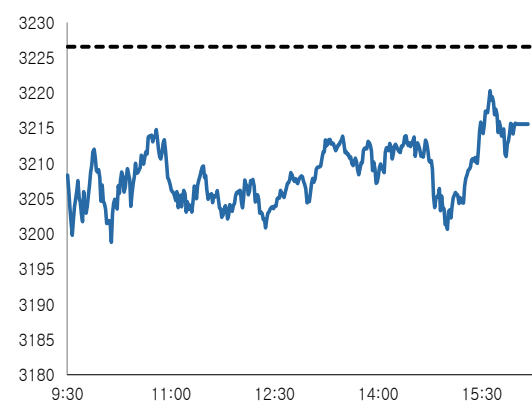
미 증시 특징: FANG 기업 낙폭 축소

미 증시는 코로나 확산 및 고용지표 부진, 미-중 마찰 확대 여파로 하락 출발. 더불어 그동안 상승을 이끌었던 대형 기술주가 낙폭을 확대하자 나스닥이 한 때 1.8% 하락. 그러나 4% 가까이 하락하던 넷플릭스가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가 유입되며 상승 전환하자 아마존 등 온라인 기반 기업들이 낙폭을 축소하며 미 증시 또한 하락폭이 축소. 더불어 의회의 경기 부양 정책 시사도 긍정적(다우 -0.50%, 나스닥 -0.73%, S&P500 -0.34%, 러셀 2000 -0.72%)

미국의 소매판매가 전월 대비 7.5% 증가하고 전년 대비로도 1.1% 증가하는 등 소비 개선 기대가 확산. 그러나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6.7 만명으로 확산된 가운데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가 예상보다 많은 130 만건을 기록하자 고용 불안 우려가 지속. 특히 계절 조정을 하지 않은 수치는 지난주(139.5 만건) 보다 크게 증가한 150 만건을 기록한 점도 투자심리 위축 요인. 여기에 중국 증시가 미국의 중국 공산당원과 그 가족의 방문을 규제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미-중 마찰이 확대된 점, 텍사스 섯다운 돌입 가능성 루머도 부정적인 요인. 이런 가운데 시장을 이끌었던 온라인 기반의 FANG 기업들이 큰 폭의 하락을 하는 등 개별 종목들의 변동성 확대도 영향

그러나 장 마감 후 실적을 발표하는 넷플릭스(+0.79%)가 장중 3.6% 하락을 뒤로하고 상승 전환에 성공하자 아마존을 비롯한 FANG 기업들이 하락폭을 축소 하거나 상승 전환에 성공. 넷플릭스 실적이 중요한 이유는 코로나로 인해 최고의 성과를 거두었을 것으로 전망됐기 때문. 특히 지난 3 월 17 일 저점 이후 7 월 13 일까지 100%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 이번 실적 발표 이후에도 이러한 모멘텀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주목. 결국 장 마감 후 넷플릭스는 21.3%나 증가한 가입자 수를 발표했으나 예상보다 부진한 실적과 3 분기 가입자수 가이던스 위축을 발표하며 시간 외로 9% 넘게 급락 중이며 이 여파로 여타 FANG 기업들도 시간 외로 1% 내외 하락 중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동락률(%)	Close	D-1	지수동락률(%)	Close	D-1
KOSPI	2,183.76	-0.82	홍콩항생	24,970.69	-2.00	
KOSDAQ	775.07	-0.80	영국	6,250.69	-0.67	
DOW	26,734.71	-0.50	독일	12,874.97	-0.43	
NASDAQ	10,473.83	-0.73	프랑스	5,085.28	-0.46	
S&P 500	3,215.57	-0.34	스페인	7,474.70	-0.17	
상하이종합	3,210.10	-4.50	그리스	637.55	+0.04	
일본	22,770.36	-0.76	이탈리아	20,356.09	+0.37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넷플릭스 시간 외로 9% 급락

모건스탠리(+2.55%)는 기대 이상의 실적과 2021년 배당을 늘리고 자사주를 매입하는 것을 재개할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하자 상승했다. 반면, BOA(-2.72%)은 양호한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하락 했는데 코로나로 인한 총당금이 40억 달러 증가했고 이자 수입도 11% 감소했다고 발표한 데 따른 것으로 추정한다. 아메리칸 에어라인(-7.37%)은 코로나로 인한 여행 수요 급감이 지속될 것이라고 발표한 가운데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6.7만명을 기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급락했다. 델타항공(-4.69%), 보잉(-4.92%)도 하락했고, 부킹닷컴(-2.92%) 등 여행주, 카니발(-9.73%) 등 크루즈 업종도 급락했다. 특히 노르웨이 크루즈(-15.62%)는 대규모 증자 소식에 급락했다.

장 마감 후 실적을 발표하는 넷플릭스(+0.79%)는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속 장 중 하락을 뒤로 하고 상승 전환에 성공했다. 이에 힘입어 아마존(-0.30%), MS(-1.98%), 알파벳(-0.13%), 페이스북(+0.27%), 애플(-1.23%) 등 대형 기술주도 낙폭이 축소되거나 상승 전환했다. 넷플릭스는 장 마감 후 부진한 실적 발표한 가운데 9% 급락 중이며 이 여파로 대형 기술주도 1% 내외 하락 중이다. 테슬라(-2.93%)는 캘리포니아주에 전기차 등록 대수가 급감했다는 소식에 하락했으나 넷플릭스 효과로 낙폭이 축소되었다. 니콜라(-3.76%)는 도이체방크가 크라이슬러보다 기업 가치가 더 좋다고 보고서를 발표했으나 현재 가격에서는 매수 추천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 하락했다.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XOP)	-0.25%	대형 가치주 ETF(IVE)	-0.02%
에너지섹터 ETF(OIH)	-1.08%	중형 가치주 ETF(IWS)	-0.11%
소매업체 ETF(XRT)	+0.68%	소형 가치주 ETF(IWN)	-0.46%
금융섹터 ETF(XLF)	0.00%	대형 성장주 ETF(VUG)	-0.77%
기술섹터 ETF(XLK)	-1.24%	중형 성장주 ETF(IWP)	-0.57%
소셜 미디어업체 ETF(SOCL)	-1.84%	소형 성장주 ETF(IWO)	-0.93%
인터넷업체 ETF(FDN)	-0.51%	배당주 ETF(DVY)	+0.50%
리츠업체 ETF(XLRE)	-1.17%	신흥국 고배당 ETF(DEM)	-0.42%
주택건설업체 ETF(XHB)	+1.12%	신흥국 저변동성 ETF(EEMV)	-0.97%
바이오섹터 ETF(IBB)	-0.82%	미국 국채 ETF(IEF)	+0.07%
헬스케어 ETF(XLV)	-0.16%	하이일드 ETF(JNK)	+0.09%
곡물 ETF(DBA)	+0.52%	물가연동채 ETF(TIP)	+0.20%
반도체 ETF(SMH)	-0.08%	Long/short ETF(BTAL)	+0.87%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282.57	-0.51%	+7.93%	-5.14%
소재	381.69	+0.36%	+6.44%	+8.16%
산업재	604.74	+0.00%	+6.58%	+2.11%
경기소비재	1,115.20	-0.27%	+0.04%	+6.55%
필수소비재	628.77	+0.22%	+3.44%	+3.64%
헬스케어	1,217.06	-0.17%	+3.44%	+4.62%
금융	401.26	-0.05%	+6.47%	+0.38%
IT	1,870.12	-1.22%	-1.67%	+3.96%
커뮤니케이션	191.43	+0.30%	+1.45%	+3.94%
유틸리티	299.25	+1.32%	+3.84%	+0.32%
부동산	214.37	-1.19%	-1.19%	-4.03%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한국 주식시장 전망

넷플릭스 여파로 부진 예상

MSCI 한국 지수 ETF 는 1.01% MSCI 신흥국 지수 ETF 는 1.41% 하락했다.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204.75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2원 하락 출발 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소매판매가 급증하고, 미 증시 또한 낙폭을 축소하며 마감해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졌다. 특히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미 국채금리 등 여타 금융시장도 미 증시 초반의 안전자산 우위의 장세에서 위험자산 선호 시장으로 전환 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흐름은 한국 증시에 긍정적이다. 더불어 미-중 마찰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외교부가 미국의 제재와 긴장 유발에도 불구하고 미국과의 1 차 무역협정이 이행 되기를 바란다고 발표하는 등 유화책이 나온 점 또한 긍정적이다.

반면, 미 증시 마감 후 넷플릭스가 21.3% 급증한 가입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부진한 실적을 발표하자 시간 외로 9% 하락하고 있다는 점은 부담이다. 최근 시장에서 실적이 양호하지만 대형 기술주들은 밸류에이션 부담으로 변동성을 확대해 왔는데 넷플릭스의 실적 발표 후 하락은 관련 종목들에 대한 매물 출회 지속을 야기 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넷플릭스 실적 발표 후 미국 대형 기술주들도 시간외로 1% 내외 하락 중이다. 이는 한국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나 중국의 미국에 대한 유화책 등을 감안 조정폭은 제한된 가운데 중국 증시에 주목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경제지표 결과

소비 개선 Vs. 고용 불안

미국 6 월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7.5% 증가해 예상(mom +5.2%)를 상회했다. 자동차를 제외한 수치도 전월 대비 7.3%, 자동차와 가솔린을 제외한 수치도 전월 대비 6.7% 증가했으며, 특히 음식 서비스 및 레스토랑 판매가 20.0% 증가하는 등 경제 재개 효과가 컸다.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는 지난 주 발표(131 만건) 보다 소폭 감소한 130 만건을 기록했으나 예상(129 만건)을 상회했다. 계절 조정을 하지 않은 수치는 지난주(139.5 만건) 보다 크게 증가한 150 만건을 기록해 고용불안이 지속된 모습이다.

7 월 주택시장 지수는 전월(58)이나 예상(60)을 상회한 72 를 기록해 코로나 이전을 회복했다. 다만 고용 비용 증가, 숙련 기술자 부족 등으로 어려움은 지속되는 경향을 보였다.

7 월 필라델피아 연은 지수는 전월(27.5) 보다 부진한 24.1 을 기록했으나 예상(20.0)을 상회했다. 세부항목으로는 신규수주(16.7→23.0), 고용지수(-4.3→20.1) 등이 개선 되었다.

상품 및 FX 시장 동향

달러 강세, 국제유가 하락

국제유가는 중국의 소매판매 부진과 미국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6.7 만명을 기록하자 소비 감소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며 하락했다. 특히 미-중 마찰이 확대되는 등 불안심리가 여전한 점도 부담이 되었다. 다만, 미국과 중국의 산업생산이 양호한 모습을 보인 점은 낙폭 제한 요인 중 하나였다.

달러화는 소매판매 개선에 힘입어 여타 환율에 대해 강세를 보였다. ECB 가 통화정책을 통해 채권 매입 지속을 시사한 이후 유로화 약세도 달러 강세 요인 중 하나였다. 한편, 코로나 확산 및 미-중 마찰에 대한 우려로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부각된 점도 또한 달러 강세 요인이었다.

국채금리는 고용 지표 불안과 미-중 마찰 우려로 하락했다. 특히 미 증시의 약세도 하락 요인 중 하나였다. 다만, 오후 들어 미 증시가 FANG 기업 위주로 낙폭을 축소하자 국채금리 하락폭이 축소되었다. 존 윌리엄스 뉴욕연은 총재는 “연준은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정부의 직접 경제 지원이 필수적이다” 라고 언급했고,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는 “고용과 인플레이 전망을 감안 완화적인 통화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라고 주장했으나 영향은 제한되었다.

금은 달러 강세 및 ECB 의 지속적인 채권 매입 지속 등의 발표로 하락했다. 다만 미-중 마찰 지속, 코로나 확산 등으로 반발 매수세 또한 유입되는 경향은 지속되었다. 구리 및 비철금속은 달러 강세 및 미-중 마찰 우려로 하락했다.

주요 상품	증가	D-1(%)	D-5(%)	주요 통화	증가	D-1(%)	D-5(%)
WTI	40.75	-1.09	+2.85	Dollar Index	96.330	+0.26	-0.38
브렌트유	43.37	-0.96	+2.41	EUR/USD	1.1383	-0.25	+0.87
금	1,800.30	-0.74	-0.19	USD/JPY	107.27	+0.31	+0.07
은	19,573	-0.95	+3.22	GBP/USD	1.2555	-0.25	-0.40
알루미늄	1,670.50	-0.77	+0.39	USD/CHF	0.9451	+0.08	+0.53
전기동	6,436.50	+0.79	+2.17	AUD/USD	0.6972	-0.51	+0.11
아연	2,225.50	+1.14	+3.22	USD/CAD	1.3578	+0.51	-0.06
옥수수	330.25	+1.23	-5.30	USD/BRL	5.3326	-0.73	-0.22
밀	535.25	-2.81	+1.95	USD/CNH	6.9966	+0.21	-0.01
대두	891.00	+0.93	-1.16	USD/KRW	1205.60	+0.42	+0.84
커피	98.35	+1.18	-0.41	USD/KRW NDF1M	1204.75	+0.34	+0.65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미국	0.614	-1.64	0.00	스페인	0.398	-2.00	-0.60
한국	1.370	-4.20	-2.70	포르투갈	0.414	-1.00	+0.20
일본	0.026	-0.90	-0.50	그리스	1.225	-4.80	+13.50
독일	-0.465	-2.10	-0.20	이탈리아	1.185	-1.40	-3.80